싱가포르의 사법부와 대법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식민지 법원에서 국가 사법부로

1965년 8월 9일의 독립은 법원의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1] 식민지 대법원은 계속 재판을 열었고, 영국 보통법은 계속 적용되었으며, 런던의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는 여전히 최종 상고법원으로 남았습니다. 1970년 1월 9일 시행된 1969년 대법원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은 공화국의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대법원을 국가 기관으로 재설립하였습니다.[2]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명칭보다 이러한 연속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1964년에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한 상사계약은 1966년에도 같은 원칙에 따라, 그리고 대체로 같은 법관들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런던과의 단절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추밀원에 대한 상고는 20년에 걸쳐 제한되었고, 1994년 4월 8일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해 항소법원은 실무성명(Practice Statement)을 통해 특정 사건에서 선례를 고수하는 것이 부정의를 초래할 경우 자신의 종전 판결이나 추밀원의 판결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이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3] 그 문구의 신중함 자체가 법적 안정성에 관한 하나의 선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언이었습니다. 선례를 쉽게 변경하는 법원은 눈앞의 사건에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기존 규칙을 신뢰한 수많은 당사자의 기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입법은 1993년 영국법적용법(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 1993)이었습니다. 이 법은 1993년 11월 12일 민사법(Civil Law Act) Section 5를 폐지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상사법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영국 상사법을 싱가포르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던 규정이었습니다. 새 법은 보통법과 형평법이 싱가포르와 그 주민의 사정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만 싱가포르법의 일부로 존속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영국 제정법은 이제 그 부속서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4] 이 개혁으로 싱가포르 상사법이 웨스트민스터 입법에 좌우되던 체제가 끝났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에게 영국 제정법의 확정된 목록이 주어져 법을 확인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2021년 이후의 법원 구조

현재의 구조는 2019년의 헌법 및 법률 개정이 시행된 2021년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고등법원은 두 부로 나뉘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과 가사부(Family Division)를 포함한 종전의 고등법원은 고등법원 일반부(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된 고등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가 항소법원에 유보되지 않은 민사 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5] 이 개혁은 늘어나는 항소 사건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항소법원은 형사 항소, 공공적 또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유형의 민사 항소, 그리고 법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법원 일반부는 싱가포르에서 저질러져 자신에게 회부된 모든 형사 범죄와 청구액이 25만 달러를 넘는 민사 청구를 심리합니다. 또한 하급법원(State Courts)과 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소, 그리고 전문 사건부에 속하는 사건도 심리합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 일반부가 형사 제1심 관할권을 행사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모든 형사 항소와 법정된 유형의 민사 항소를 심리합니다. 고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등법원 항소부는 형사 관할권이 없습니다.[6] 대법원 아래에는 하급법원과 가정법원(Family Justice Courts)이 있으며, 이들이 형사·민사·가사 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임명, 임기 및 독립성의 보장

사법부의 헌법적 근거는 간결합니다. 제93조는 싱가포르의 사법권을 대법원과 성문법이 정하는 하급법원에 부여합니다. 제95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그 밖의 대법원 법관은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총리의 조언에 동의하는 경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총리는 다른 법관의 임명에 관하여 조언하기 전에 대법원장과 협의해야 합니다.[7] 따라서 임명은 행정부가 통제하되, 대통령의 견제와 사법부 수장의 관여를 받습니다.

일단 임명되면 법관은 보통법 전통의 고전적 보호를 누립니다. 제98조 제1항은 법관이 65세까지 재직한다고 규정합니다. 제98조 제3항에 따르면 법관은 비행 또는 직무수행 불능을 이유로, 총리나 대법원장의 청원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심판소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습니다. 제98조 제8항은 임명 후 법관의 보수와 그 밖의 근무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헌법은 또한 법관의 행위에 관한 의회의 논의를 제한하고, 하급법원 사법관을 위한 사법인사위원회(Judicial Service Commission)를 설치하고 있습니다.[8]

이 제도의 두 가지 특징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관은 65세 이후에도 정해진 임기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또한 한정된 기간 동안 고등법원 법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위원(judicial commissioner)의 임명도 허용합니다.[9] 비판론자들은 단기 임명이 독립성의 기초가 되는 신분 보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옹호론자들은 이 제도 덕분에 사법부가 중견 실무자를 영입하고 경험 많은 법관을 붙잡아 둘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관이 판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입니다. 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상사 소송 당사자에게는 형식적인 논쟁보다 상사 재판부의 실제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실적은 일반적으로 탁월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재판부와 그 상사 전문성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법원 대법관, 고등법원 항소부 법관, 고등법원 법관, 원로법관(Senior Judges), 국제법관(International Judges), 사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10월 사법부 명단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32명과 국제법관 26명이 올라 있었습니다.[10] 국제법관은 주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이 법원은 2015년 고등법원 일반부의 한 부로 설립되었으며, 제F편 제III장에서 살펴봅니다.[11]

상사 소송 변호사와 법무장관을 지낸 순다레시 메논(Sundaresh Menon)은 2012년 11월 6일부터 대법원장을 맡고 있습니다.[12] 그의 재임 기간은 법원 구조 개편, 사법부의 상사 및 국제 업무 확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징지어집니다. 2026년 10월 그는 호주 사법관들 앞에서 소송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지는 궁극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에 대한 무비판적인 열광이 사법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13] 이 발언은 법원의 경제적 기능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신뢰하는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행됩니다. 이는 집행 비용을 절약하고 상사 분쟁의 결과를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금융센터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제K편 제IV장의 주제입니다.

주

1. Wikipedia, “Proclamation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5년 8월 9일의 선포는 “the official declaration that marked Singapore’s separation from Malaysia”였음.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 Wikipedia, “Supreme Court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는 “regularise the judicial system”하기 위해 1969년 제정되었으며, “Coming into force on 9 January 1970”. Supreme Court of Singapore, “Celebrating 200 years of upholding the Rule of Law”, judiciary.gov.sg, 제A편 제III장에서 인용. ↩

3. Wikipedia, “Law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상설 항소법원의 설치는 “paved the way for the abolition of all appeals to the Privy Council with effect from 8 April 1994”; 1994년 실무성명에 따라 항소법원은 선례 고수가 “would cause injustice in a particular case” 경우 자신의 판결과 추밀원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권한은 “exercised sparingly”되어야 함. ↩

4. Wikipedia, “Law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ivil Law Act Section 5는 “on 12 November 1993 by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 1993” 폐지됨; Section 3에 따라 보통법은 “so far as it is applicable to the circumstances of Singapore and its inhabitants” 계속 적용됨; Section 4에 따라 “listed in the Schedules to the Act apply or continue to apply in Singapore”인 영국 제정법만 적용됨; 이 폐지는 법체계의 독립적 지위를 부각함. ↩

5. Allen & Gledhill, “New appellate structure in Singapore Supreme Court implemented on 2 January 2021”(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mendment) Act 2019와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mendment) Act 2019에 의한 변경은 “took effect on 2 January 2021”; 고등법원은 “has been renamed the 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 “Other appeals will be heard by the Appellate Division”; “The Appellate Division has no criminal jurisdiction.” ↩

6. Supreme Court of Singapore, “Role of the Supreme Court”, judiciary.gov.sg(최종 갱신 2026년 10월 1일): 고등법원 일반부는 “All criminal offences committed in Singapore”와 “Civil cases where the value of the claim exceeds $250,000”, 하급법원 및 심판소로부터의 항소, 전문 사건부 사건을 심리함; 항소법원은 “All criminal appeals against decisions made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by the General Division in the exercise of its original criminal jurisdiction"와 법정된 민사 항소를 심리함; 고등법원 항소부는 "does not have criminal jurisdiction". ↩

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제93조 및 제95조 제1항, constituteproject.org 수록 문언("Singapore 2016",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judicial power of Singapore shall be vested in a Supreme Court and in such subordinate courts as may be provided by any written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대법원장과 법관은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if he, acting in his discretion, concurs with the advice of the Prime Minister". Wikipedia, "Supreme Court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All members of the Bench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Singapore"; 제95조에 따라 "the Prime Minister must also consult the Chief Justice before tendering advice on the matter to the President". ↩

8.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제98조 제1항, 제3항 및 제8항, constituteproject.org 수록 문언("Singapore 2016",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법관은 "shall hold office until he attains the age of 65 years"; 해임은 심판소 회부 후 "on the ground of misbehaviour or of inability"로만 가능; 법관의 "The remuneration and other terms of office (including any pension or gratuity)"는 "shall not be altered to his disadvantage after his appointm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Singapore Statutes Online 현행본 목차(sso.agc.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제99조 "Restriction on Parliamentary discussion of conduct of person holding high judicial office"; Part 9, Chapter 3 "The Judicial Service Commission", 제111B조–제111I조. ↩

9. Wikipedia, "Supreme Court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임기는 "until the age of 65, but may be re-appointed"; 사법위원은 "the same powers and immunities as High Court Judges"를 가짐(제94조 제4항). ↩

10. Supreme Court of Singapore, "Structure of the Supreme Court", judiciary.gov.sg(최종 갱신 2026년 10월 1일): 재판부는 항소법원 대법관, 고등법원 항소부 법관, 고등법원 법관, 원로법관, 국제법관 및 사법위원으로 구성됨; 법관 32명(대법원장 포함) 및 국제법관 26명.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1. Supreme Court of Singapore,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judiciary.gov.s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ICC는 “was established in 2015”이며 “a division of the 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 and part of the Supreme Court of Singapore”로서 “a diverse panel of eminent international and local judges”를 갖춤. ↩
12. Wikipedia, “Supreme Court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정보 상자: 대법원장 순다레시 메논, “6 November 2012” 임명. ↩
13. Sundaresh Menon, Chief Justice, Australian Judicial Officers Association Colloquium 2026 연설, 브리즈번, 2026년 10월 9일, judiciary.gov.sg, 제11항 및 제72항: “That willingness to accept an adverse outcome ultimately rests on the degree of trust that is reposed in the courts”; “uncritical enthusiasm may weaken judicial independence and integrity”.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